

2007'

# 설날 가정예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되게 사세요.

일시: 2월 18일 (주일 아침)

청파교회에서 가정예배를 돕기위해 제작하였습니다.

[www.chungpa.or.kr](http://www.chungpa.or.kr)

# 설날 가정예배

〈가급적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이때 가족 중에 믿음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한다〉

예배로의 초대 ..... 인 도 자

설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 시편23편 ..... 인 도 자

찬 송 ..... 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 다 같 이

교 독 문 ..... 67번 ..... 다 같 이

인도자 :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회 중 :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인도자 :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회 중 :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인도자 :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회 중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인도자 : 너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회 중 :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인도자 :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회 중 :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인도자 :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같이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 도 ..... 가 족 중

성 경 말 씀 ..... 행3:1-10 ..... 인 도 자

설 교 ..... 최고의 선물 ..... 가 족 중

찬 송 ..... 434.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다 같 이

주 기 도 ..... 다 같 이

## 설교말씀 -

오늘 본문은 기도시간이 되어 성전으로 올라가다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구걸하고 있던 사람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 병자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남들처럼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을 그날 처음 만난 것은 아닙니다. 매일 기도하러 가는 중에 여러번 보았을 것입니다. 만난 장소나 시간이나 사람도 똑 같았는데 오늘 성전으로 올라 갈 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었는데 오늘은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의 이름’ 이었습니다.

이 명절에 나름대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느냐 이곳저곳 다니기도 하며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비용도 적지않게 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 뵙는 부모님이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만나는 사람에게 드리게 되는 것은 여전히 지난 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선물꾸러미가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 선물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보시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선물을 받게 되는 분을 위해, 그분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선물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가 힘을 잃은 커다란 이유로 ‘은과 금은 내게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자조섞인 말을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인간은 사는 동안 3개의 이름을 갖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친구들이 불러주는 이름, 즉 별명, 그리고 이 세상 끝났을 때 평가되는 이름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 가정이 예수의 이름을 먼저 선물로 받아들이는 새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되는 한해에는 예수라는 귀한 이름의 선물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 유대의 신년 맞이 행사 중에서

신년 첫 날 유대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쇼파 (뿔나팔)를 불어 새해가 된 것을 만방에 선포한다(레 23:24; 민 29:1). 그러므로 로쉬 하샤나를 '욘 트루오'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는 '(나팔) 부는 날'이란 뜻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쇼파는 음악 악기로 사용되었다. 또는 출전나팔로, 백성을 전쟁에 소집하는 나팔로, 혹은 전쟁시 적을 놀라게 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신년에 울려퍼지는 쇼파 소리는 작년에 일어난 일들, 메시아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主權) 선포 등등, 유대인들에게 많은 것들을 상기시킨다. 탈무드는 신년에 울려퍼지는 쇼파 소리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

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선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정신을 차려라!  
너의 행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남기지도 못할 이익을 헛되이 구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자여,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너의 삶과 행사를 높여라.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하라.